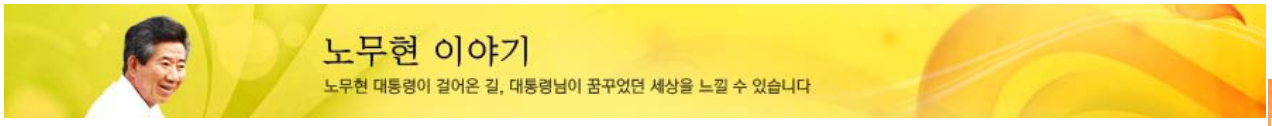

말과 글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조회수 : 28457
등록일 : 2009.03.01 23:39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 기간 중에 '사람세상'에서 잠시 그 분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상대주의 철학과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관용의 문화에 관한 저의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논쟁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저의 조문 문제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만,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논쟁의 주제는 김 추기경님의 행적에 대한 평가로 모아졌습니다. 논쟁을 보면서 우선 저는 저의 홈페이지에서 그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일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철학과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활화 하고 있거나, 그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 또는 편리한 대로 그냥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비율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민주주의가 수준이 다르듯이, 장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수준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상대주의'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상대주의 철학에 기초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현명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평등이 설 수가 없을 것이고, 어떤 생각은 옳고 다른 생각은 그르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누구도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평등을 전제로 하는 보통선거라는 제도도, 사상의 자유도 용납이 될 수가 없으니, 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복종하지 않거나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을 그 사회에서 배제해 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당당하게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주의의 귀결이기도 하고, 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의미로 보면, 관용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 하여 타도하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는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관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각기 제 갈 길을 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하여 이를 방치한다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통합하고 이를 이루는 방법에 관하여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흔히 이런 경우에 대비한 민주적 과정으로 다수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에 필요한 관용은 바로 이런 의미의 관용이라야 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방임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다름을 상호 수용하여 이를 공동체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통합할 줄 아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의미의 관용을 적극적 관용이라 말하고, 이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에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독재 체제의 현실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체득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를 위하여 끈질기게 싸운 끝에 마침내 승리했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민주주의 제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꾸려가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특별히 걸음이 느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억압적인 지배체제에서 쌓은 기득권의 세력은 지난날의 체제에 향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권위주의 문화에 익숙 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에 낯설어하고, 지난날을 그리워하여 그에 동조하고, 반대로 오랜 동안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놓고 싸웠던 사람들은 구시대의 체제와 문화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갈등의 과정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역사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 혁명 이후 왕정복고 운동이 사그라지기 까지는 80여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 그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관용을 민주주의 원리로 들먹이는 것이 좀 성급한 일이거나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관용의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국가적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고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1 '산소맨'이라는 사람이 '사람세상'에 올린 글을 보면 김수환 추기경이 보수적 성향의 발언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그 분이 민주주의를 배반했다고 말하거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적 생각이나 발언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분의 발언이 당연한 권리로 존중이 되어야 하듯이 그에 대한 비판도 당연한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분의 발언 내용에 대한 비판과 그분의 발언에 대한 인격적 비난은 달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의 경우는 그분이 고인이 되셨고 장례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두 가지를 구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감정을 절제하면서 사실과 논리로서 차분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나간다면 논리적인 비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이나 논리를 생략하고 감정을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인격적 비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써놓고 보니 별 알맹이도 없는 이야기를 무슨 말장난처럼 복잡하게만 엮어놓은 것 같아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관용의 문화에 관하여 꼭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후보시절부터 17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거듭 구상하고 말해왔던 동거정부의 구상은 기회를 잃어버렸고, 대연정의 구상은 무리했던 것이라 결국 패착이 되고 말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관용의 문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강정구 교수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민주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것이 말로는 하기 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로 정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정구 교수의 처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 정도의 발언은 용납되어야 할 자유이기 때문이었는데,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마저도 납득하지 않으셨으니 앞길이 얼마나 험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관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력하기

촌평 **192**개

지금/여기 2009.03.01 23:47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모니터링 중이었는데 너무 놀라 잠시 숨을 골라야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감사히 읽었습니다.~!!!!

찬밥연대 2009.03.01 23:48

산행후 굉장히 피곤했는데 잠이안오더니
노공님의 글을보는 행운을 누립니다
깊은밤 올려주신 천금과같은말씀
깊이새기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노!무!현!짱!!!!!!!!!!!!!!!

현진 2009.03.01 23:50

허걱..^^
늦은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매번 이렇게 만나뵙네요..^^
건강하십시요..
꾸벅..~~~

붕어마니 2009.03.01 23:50

관용..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위도식 2009.03.01 23:54

마음이 급해서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하지만 읽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지금 가미가제에 대해 연구중입니다.

축제 2009.03.02 00:00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계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대통령님의 음성도 귓가에 쟁쟁 합니다.
늘 건강 하시고 올해도 벼농사 풍년을 기원 합니다.

얼추그려 2009.03.02 00:03

상대주의까지는 체득을 했는데
관용까지는 아직 무지 어렵더군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노짱생각 2009.03.02 00:05

노공이산님!
언제나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신이나고 희망이 넘치고 하루 하루를 보낼수 있습니다^^
언제쯤 다시 뵈올수 있을런지가 너무 궁금하고
하여, 오늘 하루도 손꼽아 보며 날이 따뜻해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북두 2009.03.02 00:07

관용이라는 가치가 소중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노공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힘이 드는 가치입니다. 역사에서 보듯 갈등의

원인이 내부적인 것으로만 시작된 것이 아니며, 역사로 부터 꾸준히 내려온

그 갈등이 아니 갈등구조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튼튼해진것 같아 정말

이 사회의 갈등을 이해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극복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고개를 절로 가로지읍니다. 아마 진보진영에 계신분도 그렇고

보수진영도 그러할 것이며 심지어는 매국세력도 그리 생각할 거라 짐작합니다.

쉽게 갈등이 관용으로서 극복되기에는 한국사회의 갈등이 너무 많고 두껍습

니다.

이에 저는 노공님의 갈등치유 방법으로서의 관용은 이해하겠지만 그것을

현재의 대한민국에 반영시키는 것은 모험과 도박에 가깝지 않나 여겨 저

스스로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an**바람 2009.03.02 00:08

정말 봄인가 봅니다..
이렇게 따뜻한 노무현님 글 자주 뵈니 더할 나위 없는 봄을 만끽 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미국농꾼 2009.03.02 00:12

"관용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의미로 보면, 관용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 하여 타도하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다수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여겨집니다.

노짱님, 늘 건안하시고요...

무지몽매한 '궁민'들을 선도하여 주시길 신신 부탁드립니다.

봉하공동체로 발전하고 그 공동체가 한반도 전역에 번진다면 그게 바로 이상향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한 나그네, 미국농꾼 드림

위험인물 2009.03.02 00:12

대통령님이 그리워집니다.....
3.1절날 독도연설하신것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기 ...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미국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염화시중 2009.03.02 00:15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기다릴 수 있고, 희망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적극적 관용" 뇌에 각인시키고, 몸에 배이도록 실천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옵소서.

산비둘기 2009.03.02 00:25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는 관용...
최근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지난 해 18대 국회를 주시하라시던 대통령 님의 말씀을 두고두고 떠올리게 됩니다.
민생은 간 곳 없고, 관용은커녕 대화와 타협이 전무한 작금의 국회...
카오스 상태의 국회를 보면서 절망만을 떠올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님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열심히 뜻을 따르며 배우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대통령 님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건강입니다.
귀한 말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노사모 2009.03.02 00:26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들렀더니 그새 노짱님 다녀가셨네요.
관용의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막내맘 2009.03.02 00:30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봉하가는길**1** 2009.03.02 00:35

헉 ! 대통령님!!!
대통령님 글에 제가 일등이랴니~~이런 광영이~~

존경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꾸벅

이늘봄 2009.03.02 00:35

반갑십니더. ㅋ

mcsolong 2009.03.02 00:35

오늘은 집안 행사 때문에 이제야 로그인 했는데
헉!!! 대통령님을 만나 뵐 줄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모르고있던 것 상세히 설명 해주셔서요.
허리 불편하신 것은 차도가 좀 있으신지요?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운(산) 2009.03.02 00:36

오늘 MBC 앞에서 뉴라이트 단체와 대항집회를 벌이며 몸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도 해보고 발길질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급우와의 싸움 이래 제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들을 사이에 두고 각목은 물론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이 허공으로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깨지 않은 벽돌도 통째로 날라 오더군요. 이쪽에서 되던지고.....

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 위험물질들을 보며 한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총 안 들고 칼만 안 들었지 이게 바로 '동족상잔'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호 하나 외치지 않고 가만히 국기를 들고 있을 뿐인 동료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순간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이 슬프고 이런저런 생각이 오갑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몇 마디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몸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정치에 의해 선동되어진 같은 국민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력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관용'이라는 것, 50 중반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정말 소중히 감싸 안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온갖 사물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게시판에 무슨 말인가 남기고 싶었는데.....대통령님께서 기회를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원더우먼 2009.03.02 00:45

누구세요... 윽... 일단 3등 찍어놓고요,, ㅎ

두번 읽어 보았는데... 위의 말씀중에 전 배려 라는 잔잔한 말씀만 보입니다. 따뜻한 배려...

술한잔 2009.03.02 00:52

존경하는 노통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이해는 하겠으나 관용의 한계를 어디까지 베풀고 설득해야할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 속이 좁은걸까요?
편한시간 되십시요!!!

모랑가지에 2009.03.02 00:56

님의 글을 볼수있는 오늘도 행복한날입니다.

차칸늑대 2009.03.02 00:59

(관용의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참 진리인줄알면서도 지켜나가는데에 많은어려움이 따르는것같습니다...

도파당 2009.03.02 01:10

대통령님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있는 글 감사합니다.작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실천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칼의 노래 2009.03.02 01:31

헉! 늦은 휴일 밤에 글을 올리시다니...앞으론 휴일에도 눈을 떼면 안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상대주의'라는 말씀과 '적극적 관용'에 대한 말씀이 특히나 주목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만 대화나 토론이 가능하므로 '상대주의'는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는 말씀에 덧붙여 '기초'란 것은 '핵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거치고 밟아야만 할 '선결적 조건'이 아닌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첫걸음으로 토론과 토론문화를 말씀하셨었습니다.
뺨 한대 때리고 이야기 하자고 하면 본론으로 진입이 가능하지 않듯이, 핵심과 본질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상대주의'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상대주의를 기초로 깔아야만 다음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의 정신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저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의 소극적 관용에 그치게 되면, 결국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에 빠져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대화나 타협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실현 즉,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까지 생각하는 적극적인 수준의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허허실실한 관용에 방점을 둔 사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며 늦은 밤 기쁜 마음으로 글을 읽고 잠에 듭니다.

금란지교 2009.03.02 01:51

꾸~~벅 잘읽었습니다...내일 식사때 냉이 된장국을 추천드립니다..

밀주 2009.03.02 01:52

구구절절 귀하신말씀 가슴저리도록 감사합니다..사실 제가 이시간에 컴을 들여다보는것도 노공님의큰가르침덕분입니다 약자를 생각하고 나라를걱정하고 분노하고 눈물을 같이흘릴수있게끔 저를깨우쳐주신분...참여정부시절의 노공님의 고뇌를보면서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노공님의 고뇌가 던져주신 메세지는우리나라의 미래의 민주주의의초석이 됨을 확신합니다 요즘에일어나는 일련의 모습들중에서도 어쩜 노공님께서 다져놓으신 민주주의의 체취가 언뜻언뜻 느껴지곤함니다 부끄러운이야기지만 만약 노공님이 않계셨다면 "나라가 어려운데 왜들 시끄럽게 난리야며 국민의 아픔을 수수방관하는그런 50대일겁니다,얼마전 어느날밤 강남역에서 묵묵히 촛불을 들고있는우리청년들을 보고 술마시고 귀가하던 내자신이 너무 미안한생각에 주머니를 털어 차비만 남기고 밥이라도사먹으라고 주고온제모습을만들어주신 노공님이 감사할따름입니다..부디 건강하십시요 존경합니다....

마당 2009.03.02 02:57

노공님의 민주주의 철학의 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노공님이 느끼는 고뇌의 한 면도 짐작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부단한 정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작나무 2009.03.02 03:06

잘 읽었습니다. 지루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았습니다.

읍내귀신 2009.03.02 03:11

좋은글 감사합니다.

시대유감!!! 2009.03.02 03:33

지금 한국사회는 사회갈등이 너무도 많고,

관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이 아니라 전무하다시피..

보수쪽은 말할것도 없지만..진보쪽이 어떨땐 오히려 더 관용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요...

도원경 2009.03.02 03:40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만세 2009.03.02 04:10

언제나 해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파란노을 2009.03.02 05:38

"누군가 괜찮은 제목 달았네"라고 들어왔다가 "헉" 후후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합니다. 살아야합니다.

didfks 2009.03.02 08:06

허걱, 우리대통령님, 스크랩하고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조금더 잇을걸, 후회스럽내요.
12시 조금 넘어서 꼬오 잤는데....

흙마당 2009.03.02 08:13

대통령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대통령님 글로 인해 이곳에서 느끼는 기쁨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관용'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용이 양심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올바른 관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타협이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베푸는 관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는 절름발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곳에서 자주 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영길 2009.03.02 08:14

어제의 피로가 잠을 유도하여 깊은 잠을 자고, 출근길에 잠시 들어왔는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딧불빛 2009.03.02 08:15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습니다,민주주의와 관용이라는 수준을 대통령님께서 끊임없이 이끌어주셔야 합니다,새로움에 대한 거부 반

응과 과거 독재 시절을 그리워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런 생각을 깨우쳐야 하는데 대통령님의 글 중에 프랑스 사례를 드셨군요...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자주 좋은글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내마음 2009.03.02 08:20

반갑십니더.ㅎㅎㅎ

코발트 블루 2009.03.02 08:36

어머나~순간 제 눈을 의심했네요...
한번더 보고 또 봐도 대통령님이시죠?
넘 방갑고 고마워서..
아침부터 순진한 저를 황홀하게 하시는군요...

대통령님....
딱딱하고 지루할만한 얘기들을
어찌 이리도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글도 잘쓰시는지...
이런 글은 한번 읽기도 힘든데
오늘은 두번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고뇌하시는 님의 모습을 뵈는 듯해서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제 일찍 잠이 들어 님의 글을
바로 보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침부터 뛰는가슴 꼭 부여 잡고 오늘도 전 행복하게 살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모습 뵙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미니&성우 2009.03.02 08:39

네..님의 말씀에 백배 동감합니다 ^^*

매그놀리아 2009.03.02 09:05

울 노짱님의 매력..
지루하고 딱딱할수 있는 이야기도
국민들이 쉽게 알아 들을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것..^^
좋은말씀..깊이 새기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무쏘궁댕이 2009.03.02 09:19

노공이산님의 글을 읽고나니..
제 자신이 무척이나 옹졸했구나....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산소맨 2009.03.02 09:23

관용의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집권정치세력과 그를 둘러싼 지원세력을 떠올리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관용이 그들에 대한 나약함이 되는것은 아닌지,대화와 타협,관용이 가능한 세력인지-
정말 골치아프고 어렵지만...노공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원리를 보다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강건하십시요

비단장시 2009.03.02 09:28

"관용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의미로 보면, 관용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 하여 타도하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쉽게 잘 가르쳐주십니다 .
중학생도 이해할수있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난솔잎 2009.03.02 09:31

스스로 관용을 실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존경 합니다!

묵은김치 2009.03.02 09:34

관용과대화 모든것에 올은말씀 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민주주의를 외쳐도 대화없이는 이룰수없는 숙제이지요
노공이산님의 글 한주 시작 월요일날 맞이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밖으로 나오셔 봄의 기운을 받으세요~~~꾸벅

관장님 2009.03.02 10:07

힘들어요~

그리워요

사랑합니다

동마루부동산 2009.03.02 10:08

톨레랑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의 인정
말은 쉽습니다만, 실천이 항상 문제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서울역 2009.03.02 10:21

건강하세요.. 작년에 국보법문제로 힐튼호텔에서 하신말씀이 떠오르는군요. 아마 강기갑의원님이 발언에대한 답이였던걸로 기억하는대 "국보법은 국회서 바꾸는거죠" 라고 하셨죠..

sumi51 2009.03.02 10:31

봄이 왔는데 노대통령님을 못뵈오니 봄도 아닌가 싶게 춥습니다.
한글자 한단어 귀하게 읽고 감사했답니다.
일국의 대통령님과 이렇게 조우할수있다니 저는 참으로 이곳이 영광스러운자립니다. 기분좋고요 행복합니다.
강하지만 여리신 님의 심성을 보는듯 하고 ...
혹시나 하고 봉하사진관을 들여다 봅니다. 그립고 보고픕니다.

나름다움 2009.03.02 10:33

겨우 이제야 민주주의란 누군가가 대신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모여 이루어져간다는 걸 깨우칩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을 내고 있었다는 것...
가슴벅참과 동시에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하시지요?^^

메뚜기아빠 2009.03.02 10:44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상대주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있어 관용이란 무엇인가? ―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방임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다름을 상호 수용하여 이를 공동체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통합할 줄 아는 사고와 행동.

노공이산님의 생각을 접하니 기분도 좋고 배움도 큽니다.
저를 돌아보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을까...걱정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지도를 부탁합니다.^^

시인의노래 2009.03.02 11:32

정답을 써 놓으셨네요.
늘 감사합니다.

고태현 2009.03.02 11:54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대통령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이땅에 피어나기를 바래봅니다.

digna 2009.03.02 12:01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해와 관용일 것입니다.
간혹은 같은 집안에 사는 가족과도 의견 마찰이 생깁니다.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그저 이해만으로 또는 관용으로 껴안기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봅니다.
서로의 의견차을 좁혀갈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노짱님의 말씀에 공감, 또 공감하며
좋은 가르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노짱님의 글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실천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순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존경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글과 더불어
노짱님의 백만불 짜리 미소도 같이 뵙고 싶습니다.

터진후라이 2009.03.02 12:47

노공이산님..거만하고..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전여옥..같은 족속들과..관용 하기 싫습니다..
그들과..같은 민족이라는게..너무 슬픈데..
그래도..관용의 마음으로..소통해야 한다는..이야기가.
애처롭기만 합니다..
마음이 서러워서..노공이산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약한자를 보듬어준..사랑이 이리 평생 잊히지 않듯이..
약한자에게 횡포 부리는..그 포악함도..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사랑하고..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말씀이..이 미약한 몸부림에게..오늘은 마냥..가엾고 마음이 아픔..

나르치스**71** 2009.03.02 13:12

절대적 신념을 가진 진보의 가치로 보면 결코 타협이란 존재할수 없는것이겟지만,우리는 타협하며 이나라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이나라의 가치를 보면 보수와진보의 싸움이 아닌 원칙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려는자들과 권위주의와 수구하려는 자들의 싸움일것입니다.관용이란 절대적 우위를 가진 자만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용서일것입니다.

그런의미로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관용해야겠지요. 대통령님의 글 가슴에 새깁니다.

didfks 2009.03.02 15:58

지금 다시 보니, 저가 산행후기 쓴후에 에고, 너무 졸려서 댓글 달고 잤는데... 그래도 저위에 우리 노짱님, 이름이 잇어 너무 좋아요. 이 행복.ㅋㅋㅋㅋㅋ

돈나무 2009.03.02 16:04

노짱님께서는 관용을 실천하셨지만 저쪽의 사람들은 무슨 꿍꿍이냐는 식이었고 이쪽의 사람들은 오히려 노짱님을 변심했다 서둘러 비판하였지요..왜 그럴까 참 답답했었는데...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공유하는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불가

,이해불가...죄송합니다..저또한 너무도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개울건너 2009.03.02 16:05

"말처럼 행동도 아름답다면....."
그렇습니다. 말처럼 행동도 아름답다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노공이산님이 말씀하시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속에서부터 대화와 타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도 길은 관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말처럼 행동도 아름다운 노공이산님의 글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엔돌핀가득 2009.03.02 16:3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없음 2009.03.02 16:43

노공이산님을 '동갑내기 과외선생'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노공이산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동갑내기란 뜻에서요.
사실은 배운다는 뜻을 넘어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퍼런 5공시절 대통령직선제에 관한 노무현 변호사님의 설문지를(ㅂ대학에 보내신) 받고 너무 무섭고(?) 놀랐던 것이 거의 4반세기 전 쯤 됩니다. 그리고는 청문회스타 노무현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사람사는 세상의 노공이산님으로..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왠지 늘 감동 받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치, 경제, 사회, 제대로 아는 것도 제대로 배운것도 없이 살아왔던 거 같습니다. 아무리 전공이 아니라 하나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살아왔으나, 87이후 정치족쇄가 풀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널리 접할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개방된 사회만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늘 겸손하기만 하신 노공이산님.
오늘 글에서도
뜨거운 감동 먹습니다.

공부해야지요. 다른 사람들과 부지런히 의견을 나누어야지요.
힘들겠지만 잘 될거라 믿습니다.

짱나라 2009.03.02 17:38

헉~ 이 글을 이제서야 발견하다니!.... 뒤늦게나마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글 엄청 싫어하는 제가 어렵지않게 술술 읽었습니다.
우리 노공님 아잣!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관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관용... 결코 쉽잖으나, 더불어 살 길이기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계속 깨우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나팔바지 2009.03.02 18:25

말씀 잘 읽었습니다.
존경 합니다.

여전사**65** 2009.03.02 18:42

부경회원님들이 잽싸게 댓글 다셨네요.ㅎㅎ 대통령님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글올려주셔서 저희들이 깨우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끼리코 2009.03.02 18:46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자기가 맺고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하고 노력해야겠네요...^^
늘 건강하시고 빠른 시간에 다른 글로 만나뵙길 기원합니다!!~~

시라소니黃 2009.03.02 18:47

잘 읽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노랑경 2009.03.02 19:15

아직은 "나와 같지않음" 을 인정하는것 조차도 어렵지만
더 많이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 하겠습니다

.

사랑 합니다.
존경 합니다.

Marine Boy 2009.03.02 19:17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보수적 색체를 띄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는 가톨릭 사상보다는 진보적 색체를 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평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분의 사상과 말씀에 배어 있는 보수적 색깔은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의 보수적 성향때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추기경도 가톨릭 조직 체계의 한 직위임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쉬울까요 ?

학다리돌쇠 2009.03.02 19:37

건강하십시오.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현재와미래 2009.03.02 20:03

노대통령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남의 생각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다양성의 존중 말입니다.

노대통령님, 건강하셔야되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노대통령님, 권양숙 여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착하신 분은 하늘이 돕고
북극성주위에 별들이 도는 것처럼, 다른사람들이 그 사람주위를 돌기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는다네요. 정말 그런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제나 뭐하시나 궁금한 제인생 최초의
대통령이시거든요.

mh669 2009.03.02 20:05

정의는 언젠가는 밝혀져 새롭게 탄생 하리라 믿습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옆얼굴 2009.03.02 20:07

민주주의 대안학교 드디어 개강입니까? ^^
감사합니다.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화은 2009.03.02 20:19

간혹 올라오는 글을 읽을 때마다 배우는게 많습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하군요...
감사합니다.

대륜 2009.03.02 20:24

저 나름의 원망이 가득할 때는 부처님을 빌어서도 용서가 안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봉하에 계신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금언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이나마 '다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내외분의 건안하심을 늘 빌고 또 비옵니다^*^

뚱뚱이 2009.03.02 20:41

허걱~~~하필 제가 나간다음 글을 올리셨나욤???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세욤.
연필들고 적으며 자세 바로 고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늘 하고 싶은말ㅋㅋ 살앙합니다.^.~

아줌마 2009.03.02 20:57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지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lesson이 되는 말씀 자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동관 2009.03.02 20:59

이래서..이래서..내가 노대통령님을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깊이있고 사려깊은 우리님의 명강의...최근 게시판에 올라온 김추기경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들에서 저도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 해답을 이제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 얼마나 멋지신 말씀이란 말입니까? 우리 회원들에게서 '관용'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끼신게 분명합니다.느끼는 바 무지 많습니다.
깨우쳐 주신 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산중호걸 2009.03.02 21:06

프랑스 대 혁명 이후 왕정복고 운동이 사그라지기 까지는 80여년...ㅠㅠ
우리가 더 노력해야 겠네요.60년을 더 기다릴 순 없지요.ㅎㅎ
언제나 구구절절 타당한 말씀만 하시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dnr12 2009.03.02 21:13

제 대통령님께서는 끝내 우직하시네요. 좀 반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슬쩍 비켜 가시지... 당신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해오름 2009.03.02 21:18

노공이산님의 바로 이러한 점이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훌륭한 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진 노공이산님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쉼과자유 2009.03.02 21:25

울 대통령님 글을 보니 가슴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눈물만 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놓치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선을 향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살겠습니다.

백제 2009.03.02 21:40

가슴에 와 닿네요.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세상에서 한국인끼리도 소통이 안된다니 부끄럽습니다 먼저 아내와 화해를 해야 겠네요

종회아빠 2009.03.02 21:45

눈물이 날려고 합니다.

큰 가르침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julia 2009.03.02 21:47

너무 너무 지치고 힘든데...
대통령님 말씀이 힘을 줍니다.
관용, 대화, 타협...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의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또 걸어가야 할까요....

짱가님 2009.03.02 22:09

노무현대통령님!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건강하십시요.존경합니다.

cjsals 2009.03.02 22:26

노무현대통령님 말씀에 저도 고개가 숙여집니다

과천아줌마 2009.03.02 22:34

프린트 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위에서 자꾸 까칠하다고 해서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신녀 2009.03.02 22:40

지루하고 딱딱한 이야기라뇨.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지금시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셔요. 현정권과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글 쓰시면 너무나도 비교하게 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과연 이런수준의 글을 쓸 수 있을지 이마저도 의심될 정도거든요. 관용이란말이 제 마음에 더 와닿았던 이유는 현정부가 요새 있었던 용산참사와 미네르바사건 등을 뒷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가 7.80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관용이란것이 정말 있나 싶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갑니다. 뉴라이트나 한나라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관용'이거든요. 하지만 이 당파에게는 제 무관용의 의지를 굽히고 싶지 않네요..

안성사랑 2009.03.02 22:51

노공님의 글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교과서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가르침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언제 노공님의 글이 올라오나?하고 매일 출석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뵙고 싶습니다.밖으로 나오셔도 되실듯 싶습니다.

늙은이 2009.03.02 23:00

힘드실텐데 그렇게 표현에 치밀함 신경쓰지 마세요
간단히 말씀하셔도 다들 알아듣읍니다

말씀 내용이 길수록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행여
무슨 구실이 있을까? 조마조마 읽게 된답니다

생트집의 달인들이 토씨 하나까지 까뒤집어 볼껄
생각하면 항상 조마조마 합니다

자안 2009.03.02 23:22

와~~~ 제가 여기 들르는 이유는 바로 노공이산님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인데요..와 오늘 한건 올렸네요...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 핵심원리라..다시한번 마음속에 다져봅니다...아주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실천하기 어렵기에 노전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역설하신것 같네요.자기 지역 자기이익 앞에선 민주주의가 흐려지니까요..노무현 전 대통령님...광야의 선구자 같으신 분이십니다...이세상이 싫다가도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꿈을 불어 넣으시는 님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힘이 납니다...답답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겠어요..감사합니다 ^^

깔루아 2009.03.02 23:32

홍세화씨가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에서...
"똘레랑스"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어렵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련이 필요하겠죠?

노짱님의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훌륭한 시민으로..살겠습니다..ㅎ

청갈매기 2009.03.02 23:52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토르(블루핑크) 2009.03.02 23:58

네... 잘 안되지만,,,노력하겠습니다.
허리 편찮으신건 괜찮으신지요?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lija 2009.03.03 00:28

관용!!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다름을 상호 수용하여 이를 공동체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통합할 줄 아는 사고와 행동"

관용의 전제는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가능하지 않는지요? 특히 힘 있 자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그러나 과연 욕망의 브레이크가 없는 인간에게 가능하겠는지요?

바다맘 2009.03.03 01:01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들에겐 엄중한 잣대를 세우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만연한 관용인 것 같습니다.

생활에서, 그리고 특히 논쟁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3월 1일 아픈 역사를 가졌고 현재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잠 못 이루시고 가슴에 말씀 하나 내려두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니 2009.03.03 02:36

제가 100번째 댓글입니까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늘북 2009.03.03 02:3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비판과비난사이 2009.03.03 03:09

정치 교과서 한부분을 읽은 느낌입니다. 아니 교과서보다 더세세하고 대통령

님의 생각을 엿볼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제 삶을 한번더 되돌아보는

기회도 ㅇㅅㅇ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해서 그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사

람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희 2009.03.03 04:41

"법치주의를 준법과 질서확립의 구호로 왜소해놓고 그것이 곧 민주주의"인양 떠드는 소음에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님의 글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경제학의 논쟁 중에 "완벽한 계약 (complete contract)"을 맺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더군요. 사람의 인식능력에 비해 세상은 복잡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어떤 글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점 등등을 고려하면 사후적인 협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계약은 없지요. 같은 논리로 "대화와 타협의 과정으로서의 政治"를 배제한 法治는 "특정 입장의 강요"에 다름아닌 것이며,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협소하게 전락시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오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님'의 글은 반가웠습니다. 더욱이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진보진영에도 필요하다는 균형잡힌 지적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안고 있는 과제를 새삼 다시 느끼게 합니다.
공감의 뜻을 서론으로 하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상대주의와 관용 등에 대해 약간의 시비를 걸어볼까 합니다. (댓글이 계속 이어질려나?)

감희 2009.03.03 05:51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상대주의이며,관용(소극적인 것을 너머 적극적인 관용)이 이를 보완한다고 정의하셨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회의 다원성의 인정, 더 나아가 존중"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을 간단히 하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인종차별주의', '신분 제도'를 배제합니다. 인종차별주의, 신분적 차별을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관용할 것인가에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경계가 있고,민주주의도 역사적 산물이란 점을 감안하면 경계의 변화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합법칙성" 혹은 "선악 구도에 입각한 종교" 등이 '사회의 발전 방향'의 절대적인 지침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상대주의'이다라고 규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모든 주장을 상대주의의 이름하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참는 데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 또한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만 줄여야...

젊은영혼 2009.03.03 06:19

정말 살아있음을 이 글로 인하여 실감합니다.
언제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안타까워 하면서도 점점 앞으로 가고 있음에 안도합니다.
답답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임도량 2009.03.03 09:14

노무현님 건강하시면좋겠습니다.

도사원조 2009.03.03 09:29

작가 =노무현....시인 =노무현....소설가 ==노무현....무현이 행님 불펜만 가져도 먹고 살으시겟네용..ㅋㅋㅋㅋㅋㅋ....근데.....내...몇 등임..?

도사원조 2009.03.03 09:32

우....추천이 어디잇남여.....쩝....저는 무식하지 안습...가끔 해메는검.

사계절 2009.03.03 10:03

노무현 대통령님,김수환 추기경님과 많이 닮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병들고,못배우고,힘없는 사람들도 모두 포용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gamsa 2009.03.03 10:36

대화...

타협...

관용...

이것이 실천되어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루워지길...

간 절 히.....

dooki 2009.03.03 10:37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 식견에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은 위대합니다. 그관용의 정신을 추앙하는것이지요.

마산골목대장 2009.03.03 10:40

국민이 뭉쳐야 합니다. 저들의 야만적인 행태를 꼭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오솔이 2009.03.03 10:49

상대주의.관용.민주주의란 말들을 완전히는 이해는 못하지만 잘 읽었습니다.
며칠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제 아이가 말로도 매로도 안들었을
때 어떡할래?물으니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합니다.막연하게...
저도 최상은 사랑이라 생각합니다.거기에 용서.관용.자기희생 머 이런것들이 다 들었가겠지요.
자식이야 이쁘니까 물론 원수같은 자식들도 있지만요.정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야 할지가 참 난감합니다.
저도 쓰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산이 2009.03.03 10:53

구구절절 와 닿습니다. 관용, 배려 라는것은 남을 위한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것인것을... 그래서 관용을 베풀거나 남을 배려 한다는것은 그만큼 기분좋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없는이 2009.03.03 10:56

...반대자에 대한 관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뭔가?....아마 부시가 저지른 짓이 이런사고의 결과가 아닐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해도 된다는 사고....결국 이건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도 사기이며 자기들 세력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을 망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비폭력과 관용의 가치없는 민주주의는 거의 어리석거나 모두 거짓으로 가득찬 위선이다.....

수박한통 2009.03.03 12:14

아이들에게도 이기는것보다 함께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이시대에 뒤떨어진 베타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보내는 아침마다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말해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어서 여전히 더먼저하고 더 많이가지려고 싸우지만 언젠가는 이런 가르침이 아이들의 가치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늘 생각합니다.
노공이산님 사랑합니다..

오후3시 2009.03.03 12:32

노짱님..관용은 가진자가 베풀수 있는것인데....오늘 말씀중에 관용의 주체가 모호합니다. 실컷 두둘겨 맞고..때린자를 용서하는것은 관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비겁이고..늙음이며..자신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따라서 가는것이 참 인생을 사는것이고..그것이 비록 고집으로 비칠지라도...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이그러지더라도 숨이 붙어 있는 날가지 굳굳히 길을 가는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것입니다. 관용이란..언젠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그때 상대를 보듬어 주는것 아닐까요?

노짱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는가...
두번읽어 왠지 안타깝고 씁쓸한 글이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기백은 어디에 갔는가..

아...그리운..노무현.

HUBO 2009.03.03 12:44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논리에서 말입니다.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문제일 것입니다.
상충되는 문제에는 언제나 갈등이 야기되고 그 갈등의 배경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도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멋 2009.03.03 13:44

맞습니다! 국민을 배제한 소수의 다수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만이 다수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

csfamily 2009.03.03 14:11

잘 읽었습니다. 제가 평소 부족했던 부분, 우리가 요즘 너무 잊고 지내고
있는 관용이라는 부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와는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다른 부분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통합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말씀, 다시한번 새겨
일상 생활속에서도 나와는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주의와 관용, 대화와 타협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모든 분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 같네요.
아무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종종 좋은 글, 교훈이 되는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노빠다 2009.03.03 14:18

관용이란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조,중,동과 딴나라 매국당이 대한민국을 말아처먹을걸 예상했어면서도
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쥐떼파들이 주장한것중에 대통령께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간판 높은 자들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류의 글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는데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것은

보통 성깔과 고집과 원칙과
배짱이 없다면 불가능했을거란겁니다

그런점에서 조,중,동과 딴나라 매국당을 그냥 둔것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부 쥐떼파들의 주장이 어느정도 사실인가???

근데 최근에 생각하게 된것이 재임기간중에 수시로 말씀했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관용은 상대를 인정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매국잡탕도 여론의 한축으로
조,중,동 역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전 완전히 공감하진 못합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할게 뻔한 매국노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행동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를 관용으로 포용할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또 찾아 뵙겠습니다..,

NZ 2009.03.03 14:24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신촌동 2009.03.03 14:37

평소 김수환추기경님을 존경해 오던 차, 노대통령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신문을 접하고, 글을 잘 읽었습니다. 자주 들러야 하겠다고 생각해봅니다.

박진 2009.03.03 15:18

대통령의말씀은 분명 옳은말씀입니다 ..

그런데 왜이리 허전...할까요 ..

대통령의 철학적기초는 무한대의?
이성주의, 관용주의,상대주의<상보성이아닌>에
있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정치학원론교과서. 윤리학개론교과서를 읽는기분입니다..

이런이유에서 존경을 다하지만
한편으론 ..
이런이유에서 안타까움을 느껴봅니다 ..

백제의꿈 2009.03.03 15:35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회가 아직 관용, 즉 어떠한 쟁점에 대하여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놀라운 경제성장으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지만, 짧은 민주주의 경험으로 국민들 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꿈은이루어질까 2009.03.03 15:47

노무현 전 대통령님! 혹시 읽으실지 기대는 않지만 요즘 세상사 하도 속이터져한마디올리고갈렵니다. 보셨죠! 한 나라양은 요즘 미쳐서 날뜁니다.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온나라를 둘쑤시며, 권력의 맛들여 없는 법도만들어
국민을탄압하려 하고(예:사이버모욕죄 등..), 다수 라하여 이다지도 세상이
황폐한데, 어찌 민주양은 이다지도 허약하고, 순진한지.. 제 자식과 후손에게 죄스럽고, 면목이 안서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게도 이미 권력을 놓는데도 무엇이 걱정되는지 서슬퍼렇게 눈을 부랴리며, 정부와 한나라양은 침묵을 요구하니, 어찌 이렇듯 세상이 진흙탕일까요!! 조은세상을 기대하고시픈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부디건강하시기를...

이구년 2009.03.03 17:25

아휴... 정말 어려운 말인것 같아요. 관용이라는 것이. 솔직히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배척하고 싶은 엄청난 유혹을 느끼는 것이 더 습관적이고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독선에 빠져있을 수도 있고, 자기생각이나 입장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것 같은 기분이들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먼저 개개인의 성숙도? 시민적 역량?.. 뭐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교육과도 연관될거 같도.. 선진시민? 뭐 이런 말이 괟히 있는게 아니구나..그런생각이 들어요. 노공아저씨 진짜 쉬운일이 아닌것 같아요 관용

이란게..아,, 사는게 너무 어려워용

김준기 2009.03.03 17:43

당신 같으신 분이 차라리 독재를 해주셨다면...기꺼이 즐거워 했을 것입니다!
진정 남을 배려하는 독재....왜 당신은 늘 가시 밭길만을 기거이 가시고 했습니까? 차라리 독재로 민주를 이루면 안되는 것일까요?
민주를 가장한 문민독재..위선 독재의 현실을 보면서....당신의 그림자가 그립습니다!

안성사랑 2009.03.03 17:59

3월입니다.이눈 그치면 다시 모습 보여 주실런지. 아마도 작년보다 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것 같은데.그러면 누구는 위기감느껴 상당히 싫어할듯싶습니다.그래도 나와 주십시요.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으며 ,기대고 의지할곳이 없습니다.
나오셔서 따뜻한 말씀,국민들께 힘 주시는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늘색 꿈... 2009.03.03 19:55

그저 건강하십시요..마음 편히 하시구요..그동안 너무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행수 2009.03.03 20:18

좋은 말씀 잘 봤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 개성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통합하여 이끌어 가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하다보면 아마 저의 다음 세대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뜻하고 의미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와봐요 2009.03.03 20:23

좋은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라운상도 2009.03.03 20:52

오랫만에 들어와 좋은 글을 잘 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소굼 2009.03.03 21:57

좋은가르침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큰뿌리가 자유.평등이고 중간뿌리가 대화와 타협이고 새끼뿌리가 관용이라고 이해하면 될란가요 대통령님...^^
진흙탕같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것을 먼저 배워버린것은 아닌지 여기만 들어오면 부끄럽기만 하네요
많은 가르침을 얻고갑니다
건강하시고요

취바리 2009.03.03 22:21

봄에는 나오셔야지요. 건강하시구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 조금 조금씩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겠지요. 누구 탓만 할 수도 없고 그러기엔 시간 낭비이고. 자주 나오셔요. 보고싶습니다.

이츠 2009.03.03 22:42

수많은 주장과 대안 속에서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하는 (필연적으로 가장 관용적이어야함을 강요당하는, 그러나 관용적이라는 평가는 또한 정말 듣기 힘든) 최고결정권자의 고뇌가 일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비를 부르는 소리 2009.03.04 00:02

민주주의란 다수와 옳음간의 경계선을 만든는 매우 고통스러운 갈등과 협력의 작업입니다. 대한민국에 40여년을 살아오면서 관용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가 가치가 아닙니다. 노전대통령님께서 경험하신 관용의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영택 2009.03.04 00:37

80년대 였던가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것 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과 타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호간 상대주의를 인정할 때에 가능한것이지요. 그러나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은 곧 적일 뿐이며, 토론은 쓸모없이 시간낭비만 하는 소위 공생원들이나 하는 한가한 놀음일 뿐이지요. 놀랍게도 얼마전 민주와 진보를 대변한다던 유명 일간지 조차도 토론을 비하하는 듯한 기사와 만평이 실린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민주주의의 많은 발전이 있었던것은 분명하지만 장미꽃이 피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토양은 너무 척박하기만 한 것 같아 아쉽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건강하세요.

The yellow 2009.03.04 12:12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글구 노짱님! 힘내세요~ *^^*

푸른소나무@ 2009.03.04 13:33

대통령님께서 말하신 관용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됩니다...다름을 인정한다는거 알면서도 쉽게 되질 않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약사 2009.03.04 13:51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미래를 꼭 가보지 않더라도 대충은 알수 있지 않을 까요
매일 매일 접하는 세상 소식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치 가서는 안되는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탄 기분이랄까,가야될 곳은 점점 멀어지고, 몸은 자꾸만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
그래도 노공이산님의 글을 보니 조금의 위안이 되네요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평 2009.03.04 14:08

은퇴하시고도 좋은 말씀해주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관용이란게 정치,사회적 문화의 소산이고, 경험의 소산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이념을 말하면서도 내외면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내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정말 그런 문화가 사회일반의 상식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은, 생활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상대방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증오가 우리사회 대다수의 기류인 듯 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배격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정신이 형성되어온 탓이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회정치적 문화가 이해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이라는 이론이나 형식을 말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역사속에서 그러한 관용이 구현될 만한 조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 이유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 인하여 사회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겠죠. 관용이란 것이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 즉 서로 관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관용하면 피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금력을 독점한 과거의 썩은 세력이 청산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 민주화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달성되면, 관용은 그 효과로써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며 그 때부터 비로소 관용이라는 말이 일반적 상식이 되고,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 즉 실질적 규범력과 지배력을 갖춘 하나의 사회문화가 되리라 봅니다.

관용이란 것이 각 사회세력이나 가치관 사이의 어느정도의 균형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기술인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힘의 균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을 이야기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자만이 득을 보는 것이겠죠. 소극적으로 관용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호하게 불관용해야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적극적 관용의 진짜 의미라고 해석하고 싶군요.

노 대통령의 고민은 진보영역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견해차이로 반목하지 말자는 고민같습니다. 그렇게 한정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도덕, 반민주, 반민족 행위를 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자들에게 절대 불관용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요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있어서 수직적 민주화와 수평적 민주화가 고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을 말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상없는 메아리인 것 같습니다. 관용과 불관용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냥 관용을 말하는 것보다 더 실효적이라 생각합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메주님 2009.03.04 14:08

노공님글을 이렇게 자주뵈니 봉하가 항상 열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이번주가 너무 바빠서 오늘 첨들어왔는데,이렇게 좋은글을 올려주시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즘 사회에 필요한,꼭 필요한 처방전입니다. 한땀한땀 배워서 서로를 이해하는 관용을 배워봅니다, 작게는 주변에서 마음을 상하게했던상처들을 치료하고 , 새살을 돋게 하는 말씀이십니다.노공님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야하는것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자유와책임 2009.03.04 15:55

읽고 보니 반성이 됩니다. 현 정부의 처사가 안하무인격이지만..그래도 관련당사자들의 인격까지 비난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존중의 되상이 되는 건 극소수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아...그리고,, 댓글을 10개정도까지만 볼 수 있거나,글자수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하얀곰 2009.03.04 16:30

관용

와 닿는 이들이 억수로 많을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신념의사람 2009.03.04 16:46

노대통령님..대통령님처럼 저부터 관용을 실천하겠습니다.그러다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빙정말 류 2009.03.04 17:08

저도 관용을 무척 중시합니다만 실천은 별개의 문제로 다가오기 일쑵니다.
다시한번 뜻을 새겨 조금이라도 더 관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천사네트 2009.03.04 17:26

보편적 가치인 타인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관용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느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신대로 오랜 잘못된 관행과 사고의 구조화를 반대의 의견을 또 다른관용을 용납하지 않는 구조악입니다. 다시말해 일례로 잘못된 과거청산과 사죄 그리고 그에따른 배상책임없이는 동일선상에서 관용을 요구하는 세력(특히 기특권층)은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억압이요 폭력입니다.

노짱사랑 2009.03.04 18:18

노통님 말씀따라 세상을 선도할수있는 10만명,,100만명을
사사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경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으나, 참여게시판을
독자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왼쪽 첫번째로 전진배치하여주시고,
로그인 없이도 자유로이 글을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로그인 하고 글을 쓰는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표시되야겠구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습니까??

아고라나 서프처럼 다중의 참여자들의 주된 생각이 게시판을
자연적으로 필터링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알바를 참여단계에서부터 걸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경도된 매니아층이 게시판을 접수??함으로써
생각들이 경직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노통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나무처럼 올림.

슈발리에 2009.03.04 21:00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빨간사과꼬마 2009.03.04 22:20

관용의 문화를 실천할수있는 성숙된 삶을 살고져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아타락시아 2009.03.04 23:09

여기 모인 우리들은 매일매일 당신의 미소가 행복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님께서 컴 앞에 앉아 계실 님을 상상하니
마음 한 구석이 멍해 옵니다...
님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알수 없는 님의 힘은!!!!
사람을 움직이는 마력이 있나 봅니다~~~~~~

앵초 2009.03.04 23:14

이렇게 좋은 글은 주저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홈페이지에 와서 노대통령님의 글을 보고 나니, 가슴이 다 따뜻해 집니다.
깜깜한 세상이지만 항상 밝은 등대 역할을 해 주시니,
미래가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삶은 희망이 있는한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피낸스 2009.03.05 00:32

자율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 개구리. 경칩이네요. 미혹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겨울그림 2009.03.05 05:57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홍인지문 2009.03.05 11:24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용이 없는 <다수결 원칙의 강조>와 <법 질서 준수>는 폭력에 불과하지요...청와대에 앉아 있는 인사가 이런 글을 읽고 반성을 해야 할텐데요...ㅠ.ㅠ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불암 2009.03.05 11:28

한편의 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다름을 수용하는 관용을 설명하시는 분. 이런식의 정치를 하려고 하셨던 우리 노공님!
한 하늘에 같이 있음을 자축합니다.

깨끗한정치 2009.03.05 12:04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 삶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없이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 어떤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행동을 얼마나 절제되게 하느냐인것 같습니다. 옛성현들도 그 시대에 맞지 안아 돌을 맞거나 죽임을 당한 경우가 있듯이 그런건 아닐까요?

람보**2** 2009.03.05 13:24

민주주의가 상대주의라면....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정치체제는 아니라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상대주의가 결국 법실증주의의 기초가 되고 법실증주의가 독재를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아이러니 입니다. 저도 노무현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오로지 정답만을 가르칩니다. 절대주의이지요... 정답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상대주의를 교육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식문제만 내지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 세 개는 틀린 답....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교육부터 개혁을 해야만 하는데....노무현님도 교육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ㅎㅎㅎ 정치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잘 못 알았을 수도 있고요....

손무 2009.03.05 13:45

상대주의나 관용이 중요하다는 건 인식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당파가 특정지역의 이득에만 치중하고 당리당략만 일삼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기업에 이권을 몰아주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수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도 사적인 이득에 치중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뫼인 2009.03.05 13:52

저는 고김수환추기경님을 진보나 개혁쪽에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않읍니다.

단지 보수적이지만 수구가아닌 진정한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들어서 노망끼는 있었지만----
그분에 삶 자체는 존경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폴 2009.03.05 14:35

뭉클해 집니다.
역시 대통령님의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번뜻이는 핵심의 지적에 역시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합니다.
요즘 경박한 현실속에서 더 더욱 대통령님이 그리워 집니다.

월령 2009.03.05 16:09

대통령은 이런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를 존중하고
민족 을 사랑하고
청렴함 이 몸에베고 깨끗한 도덕성 을 갖춘.
그리고
그를 믿고 있는 국민의 자존심 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대통령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공님 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빛송이 2009.03.05 16:32

언젠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볼테르의 이 말을 보고 가슴에 꽉 꽂히는게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관용이라는 단어로 또 한번 제 가슴에 뭔가 남게 해 주시네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합의의 경지까지 이르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우리 나라에 꽃피면 좋겠습니다.^^

낭만식객 2009.03.05 19:31

다시한번 더 차근차근 곱씹어서 읽겠습니다.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두물머리 2009.03.05 20:07

대통령님의 정치 인생을 지배했던,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일관되게 노력 하셨던 핵심적인 가치를 말씀하셨네요.

재직시 많이 곡해되었고,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지만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절절히 느껴 왔고, 또 한편으론 가슴도 아팠었습니다.

누구나 관용을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관용할 마음이 없거나, 자기 생각만 관용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한 현실에서 정착되기 참 어렵겠지요.

유시민 의원님이 발간할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말하고 싶은 바도 이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통합된 지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치를 인위적으로 배분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진실한 가슴과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노대통령님 같은 분들 말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들에 있겠지요.

변덕스럽지 않고, 인내하며,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힘이되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최**0**호 2009.03.06 16:31

님의 충정은 알겠으나

이런 글이 언론에 보도되어 새로운 불씨가 되니 유감이네요.

자안 2009.03.06 23:47

최0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글의 문맥을 보면 관용에 대해서 줄곧
말씀하고 계십니다.관용이 쉬운듯하면서도 어렵기에 계속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김추기경님을 언급하신 건데 박홍전총장님께서는 일부분만을 언급하며 서운함을 말씀하셨지요.노 전대통령님께서도 마음속으로는 김추기경님을 존경하지만 또 다소 서운해도 관용을 민주주의로 정착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물론 예민한 문제를 언급하신데 대해선 좀 무리하신면이 없지 않으나 너무 노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박홍전총장님도 혹시라도 김추기경님의 존엄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셨겠지요.감사합니다..^^

tmfgl8652 2009.03.07 00:46

하나두 지루하지 않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참다운세상 2009.03.07 21:58

지루하지 않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용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없는자, 못가진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관용은 아니라 봅니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부자만을 감싸고 도는 그들만의 관용에 대해서는
매서운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관용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반성하는 자에 대해서 관용이 베풀어져야
그게 진정한 관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면에서 저 쥐박이 무리들은 현재상태로는 절대 관용 불가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관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와
닿습니다. 늘 관용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저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말씀 잘 배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rudtnr2 2009.03.07 22:20

daum에 기사가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상대주의라는 것과 상대주의의 귀결은 관용이라는 말에 구름잡듯 희황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 만으로 생각하던 민주주의가 너무나 쉽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와 닿네요.^^

코알라**ksj7** 2009.03.08 00:18

진심으로 관용을 생각하고 있을때,
외부로 인해 욕심이 생기고 어떤 외압을 받는다면
그순간이 지나고 관용에 대한 생각을 다시 시작해야겠죠.
생각하고 있는데 외압으로 인해 생각이 변질되면 그건 관용이 아니니까요.
관용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우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는 상대방이 가진 사고방식의 변화가
눈에 보여야겠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일들은 상대방의 부도덕한 욕심에 대한 증거인데,
그런 상대방의 사고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관용은 힘들겠죠.
결국, 나와 상대방이 같이 발전해야겠지요.

雲南**cafei** 2009.03.08 06:07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좋은 글 많이 남겨주세요~

하늘아 2009.03.09 00:30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을 욕되이 말씀하신줄알고 놀라서 들러와서 글을 접해 보았읍니다. 고등학교 학력인 저도 무슨 말씀의 뜻으로 하신줄 알겠는데
전직 총장이시고 현직 이사장님이신 분은 무슨 생각으로 왜곡 되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답하고 이분법적 논리로 재단하는 그분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知天命 2009.03.16 21:25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알고 보니 김수환 추기경님도 대구 사람 이더군요.
김영삼 이재오 김문수 역시...

부드러운직선 2009.03.18 17:36

좋은 말씀 고이 새겨듣고 갑니다. 간만에 로그인해서 글올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반가운 소식 2009.03.18 18:50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 정도의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드물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노전대통령님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니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손해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워낭소리 2009.03.31 18:12

봄이와도 봄같지가 않은 날씨네요.시인 이상화님의 싯구처럼 이제는 빼앗긴들 대신 민주주의를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려나 봅니다.

푸른안산 2009.03.31 21:50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다....내 주변의 모든 다른것들을 인정하고 보듬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멍청이멍청이 2009.04.14 07:02

집권할때 대화와타협과관용을베풀어습니까?여기처음들어왔는데?어느종교집단같네요?찬양일색이고?데모한것이나올리고,니편내편가르고,평화롭게살아갑시다,싸우지말고?

왈순아지메 2009.04.17 19:27

맛난음식을 한접시 먹고난거마냥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충족감을 느껴요
열심히 공부하렵니다
노공님 항상 존경스러워요

롱다리 2009.04.22 00:08

전직 대통령말씀 잘 읽고 감동가는글이군요 하지만 반대와 타협은 충분히 해야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수결로가는데 정당으로가서보면 그다수결은 온국민에 마음이 아니라 힘있는자에 목이라는거 참한탄스럽습니다.제새각은 국회의원 뭐필요합니까 충분한 대국민토론 벌리고 인테넷으로 국민이직접 인터넷 투료하는것이 올타고봅니다 .

연리목 2009.05.26 01:45

전에도 이글 읽었는데,,,그때 참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런 날을 기대해 볼 수가 없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역사는 분명 기록할겁니다. 우리의 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 목숨 바치다 간 '바보' 노무현을.
사랑합니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눈물계속난다 2009.05.26 03:42

이렇게 좋은글을 올려주셨는데.....
더..좋은글을 많이많이 올려주셔야하는데...
이제..그마저도 안되겟죠....

럭포유 2009.05.27 11:51

이 땅에 당신같으신 분이 또 다시 대통령으로 설 수 있을까요? 이 절망스럽고 비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고인의 강직함과 업적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 살아 숨 쉴 것입니다...당신은 영원한 우리들의 대통령입니다.

chs1007 2009.05.28 03:53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 사랑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다시 듣고싶습니다...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해주시는 모습이 보고싶습니다...

thequeen 2009.05.28 13:47

이제서야 이런 소중한 글을 보았다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글을 볼 수 없다니..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철학을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달래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밀양산골소년 2009.05.30 02:52

이제 어디가서 이런 스승님을 만날꼬.....삶의 등대 같으신분,,,,이제 겨우 귀향의 준비를 마쳐 가건만.....또 찾아뵈옵는 날 까지 편

히 쉬십시오....근데 대통령님~~~왜 이런 걸 학교에선 안가르쳐 주나요??못 가르쳐 주나요??이 나라는 왜 이렇죠??

왈순아지메 2009.06.06 11:41

아!!! 정말 훌륭하신 우리의 대통령님.... 보고싶고 그리워서 어쩝니까

눈물글썽이며 읽고 또읽고...많이 배웁니다

beaconlight 2009.06.07 01:34

당신 생전의 말씀을 이제야 만납니다. 이 곳도 서거하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발 딛고 사는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던 의식없던 국민중 하나입니다. 여기 당신의 글을 읽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부끄럽게 해 주실 글들이 이젠 올라오지 않을거라는 사실때문에...

나의 영원히유일한 대통령 2009.06.16 19:02

이제서야 이곳 글을 읽어봅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글이 아닙니다. 이런 유사를 가진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였다니 하고 자랑스럽고 감탄 중입니다.
그 곳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없는 당신이라 가슴 아프지만, 당신이 남긴 글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운노짱.. 2009.09.28 22:08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대통령 님의 글을 몇 개 읽었습니다. 차마 그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어 그냥, 생각만 많아집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는 말 평생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힘없이 가신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가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촌평쓰기 [ ]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38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27325	운영자	2009.07.22
37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4534	운영자	2009.07.22
36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2945	운영자	2009.07.22
35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2706	운영자	2009.07.22
34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13715	운영자	2009.07.22
33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387868	노무현	2009.04.22
32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289429	노무현	2009.04.21
31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354982	노무현	2009.04.17
30	부탁드립니다 (971)	157178	노무현	2009.04.08
29	사과드립니다. (1246)	186147	노무현	2009.04.07
28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130872	노무현	2009.03.19
27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56636	노무현	2009.03.15
26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26086	노무현	2009.03.13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30610	노무현	2009.03.12
24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26684	노무현	2009.03.07
23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16589	노무현	2009.03.06
22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52304	노무현	2009.03.05
21	연속극 끝났는데... (271)	119270	노무현	2009.03.05
20	정치하지 마라. (275)	109607	노무현	2009.03.04
현재글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28457	노무현	2009.03.01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완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봉하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묘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99-1946 / 생가쉼터 055-344-1005